

칼럼

장기채 주필



국내로 가는 여름휴가, 경제도 살린다

이제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휴가철이다.

‘휴가’라는 말만 들어도 누구나 마음이 설렌다.

어려운 경제여건에 알파벳 호주머니 사정이 발목을 잡지만 일상에 지친 심신을 재충전하고, 마음의 여유를 찾기 위해 올 여름도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계획할 것이다.

잘 놀아 보라고 명석을 깔아 줘도 이렇저런 걱정 때문에 잘 놀지 못하는 어른들의 창의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여가시간에는 무조건 잘 놀고 잘 쉬어야 한다는 ‘휴테크’가 주목받고 있다.

‘잘 쉬고 잘 노는 경쟁력’이라는 휴테크(休 TECH) 경영까지 도입된 현대 사회에서 휴가가 갖는 의미는 크다 하겠다. 또 여가를 통해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일을 휴테크라고 한다.

우리말 ‘휴가’와 영어 ‘테크닉’을 합성한 단어인 듯한데 잘 놀고 잘 쉬는 게 경쟁력이란 뜻일 것이다.

“아무 생각 없이 마음 편히 딱 1주일만 쉬었으면”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면 누구나 꿈꾸는 ‘행복한 휴가’지만 뜻대로 옮겨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휴가의 의미 자체가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이전에는 직장과 공장을 벗어난 휴식, 휴양이란 의미가 컸다면 이제는 ‘재충전’, ‘재생산’ ‘휴테크’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더 큰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기 경영의 시간이자 자기 개발의 시간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휴가를 뜻하는 ‘바캉스(vacance)’는 프랑스어다.

라틴어로는 ‘빈자리’나 ‘공허함’을 뜻하는 ‘바누스(vanus)’,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뜻하는 바캉스가 널리 퍼지게 된 건 근대 이후다.

휴가 제도가 잘 갖춰진 나라는 아무래도 서유럽 국가다.

최근 미국 해리스 인터랙티브

연구소가 실시한 조사 결과는 프랑스인들의 연간 휴가 일수는 37일로 유럽에선 가장 많았다. 휴가의 천국이라 할 만한 나라는 네덜란드.

연간 휴가 일수가 28일 정도인데 총 급여의 8% 이상을 휴가 급여로 주도록 아예 노동법에 명시해 놓았다.

또한 혼자 자동자의 창업자인 혼다 소이치로는 “휴식은 대나무의 마디와 같은 것이다.

마디가 있어야 대나무가 성장하듯 사람도 기업도 쉬어야 강하고 끈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휴테크 전문가들은 업무의 양으로 승부를 겨루던 시대는 지났다고 단언했다.

업무의 질로 평가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이다.

이제 절정의 더위는 코앞이다. 더불어 학생들의 방학과 함께 본격적인 휴가철이다.

이 좁은 땅덩어리는 지금부터라도 코로나19바이러스가 물러선다면 행락의 행렬로 또 한 번 열병을 앓게 될 것이다.

끝도 갖도 없이 늘어만 가는 마이카 행렬과 뒤범벅돼버린 교통지옥, 가는 곳마다 혼잡, 바가지요금, 불결 등은 낭만과 기대에 부풀어 떠나는 모처럼의 피서 여행길을 ‘고행길’로 만들고 만다.

그래서 대개 힘겹게 휴가를 보내고 오히려 떠나기 전보다 지친 상태로 생업의 현장에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다.

우리는 고도의 성장의 불가피한 속성으로 논다는 개념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취급되었다.

이 때문에 정부 사회의 자율적 기관들도 서민들이 건전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과 여건을 마련해 주지 못했고 그 부작용으로 이른바 퇴폐성 오락과 행락 풍속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휴가로 주어지는 여가는 배움의 시간이기도 하다.

농사를 짓는 땅도 봄, 여름, 가을을 열심히 일하고 겨울에는 휴식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얻듯이 배움을 통한 휴식과 정을 거쳐야만 지속적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휴가 바람은 자칫 허영과 낭비의 바람도 함께 몰고 오기 마련이다.

휴가 본래의 목적은 휴식과 건강에 있다. 이럴 때 정치인들에게는 휴가의 계절이기보다 어려운 숙제의 시간이 됐으면 한다.

社 說

코로나19 극복할 한국형 뉴딜

문제인 대통령이 국가 경제의 미래를 열 한국판 뉴딜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 4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구상이 처음 나왔고 지난달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큰 알개를 제시한 한국판 뉴딜에 뼈와 살을 더해 구체적 로드맵을 완성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다.

한국판 뉴딜의 종합계획을 보면 국비 투입은 114조1천억원이다. 여기에 지방비 25조2천억원, 민간투자 20조7천억원을 더해 총사업비는 160조원이며 일자리 190만1천개를 창출한다.

분야별로는 인공지능(AI), 데이터, 5G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뉴딜에 58조2천억원,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에 73조4천억원 투자한다. 돋보이는 것은 사회안전망 강화에 28조4천억원을 배정했다는 점이다.

뉴딜의 전체 판을 키우고 사회적 약자와 청년층에 대한 고용·사회 안전망을 더 넓고 견고하게 펼쳤다. 뉴딜의 목표는 산업경쟁력과 성장 잠재력 강화이지만 최종 지향점은 민생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코로나19는 글로벌 경제와 산업 전반에 엄청난 충격과 격변을 몰고 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성장률을 마이너스 4.9%로 전망했다. 바이러스의 창궐을 통제하지 못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할 수 있다.

1930대 대공황 이래 최악이다. 수출로 살아가는 우리 경제도 예외는 아니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실업자가 넘쳐나면서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천억원을 넘었다. 소비와 투자 감소, 기업 부실, 대량 실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다.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서 광속으로 진행되는 구조적 대전환이라는 도도한 흐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 기업, 우리나라가 설 자리는 없다. 한국판 뉴딜은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국면을 기회로 바꾸자는 것이다.

20여년 전 외환위기 때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제조업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코로나19 사태는 산업화 이후 지속했던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으로 탈바꿈시킬 절호의 찬스다.

생활정보전화

-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 응급질병상담 1399
-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 여성 긴급전화 1366
-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 기상예보 131
- ▲ 법률구조상담 132
-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 수도 고장신고 121
- ▲ 전기고장 신고 123
-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기 0021 (일반)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 고 국 (062) 224-5800
기사제보 (062) 971-7400
팩 스 (062) 222-5547

회 장·발 행 인·편 집 인 김 평 호
편 집 국 장 직 무 대 리 서 선 옥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62가길 16-1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장마철, 전기누전화재에 각별한 주의를

장마철에는 장마가 장기간 지속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중 화재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전기누전이다.

전기누전은 전기장치나 전선의 절연불량, 전선 피복의 손상 또는 습기의 침입 등으로 전기의 일부가 전선 밖으로 새어 나와 주

변의 도체(導體)에 흐르는 현상이다.

쉽게 말하면 전기가 전선에서 새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누전의 피해는 크게 감전과 화재로 나눌 수 있다.

누전된 전류가 신체의 일부에 닿으면 감전되어 사지절단 등 장

애가 발생하거나 심하면 사망하게 된다.

또한 누설된 전류의 열이 먼지 등 인화물질에 공급될 경우 화재가 발생하게 된다.

비가 많이 내리는 날 누전차단기가 자주 작동한다면 누전을 의심해 보아야한다.

차단기의 잦은 작동으로 불편

을 겪으면 전용누전차단기가 아닌 배선용차단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차단기가 늦게 작동하여 화재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누전차단기가 작동하면 전기 사용을 자제하고 전기전 문업체나 전기안전공사 등에 의뢰하여 정밀점검을 통해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겠다.

한신건/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국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